

영산재, 화합을 기원하며...



영산재란?

영산재(靈山齋)는 약 2600년 전,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중생들 앞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하시는 그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離苦得樂)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대중들이 불법으로 하나가 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등 뜻생명이 화합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장엄한 의식으로 펼쳐진다.

영산재는 의식절차에 음악·무용적 요소가 녹아 종합문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음악·무용적 요소란 의식 진행 중에 범음(梵音)과 화청(和聲) 등이 음악적 효과를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교 음악에 맞춰 바라춤, 나비춤, 밭고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3원6각, 호적, 취타 등의 전통 악기가 동원된다.

영산재는 영산재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영산재보존회에서 이러한 영산재 관련 의식을 보존·전승하고 있다.



▲시련



▲관육



▲천수바라



▲도랑계 나비무



▲봉송

영산재 시연으로 국가안녕과 경제성장 기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불교문화를 넘어 세계 속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산재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음력 4월 24일) 도심 속 산사 봉원사 영산재 특별도량에서 봉행됐다.

2010년 국가안녕과 경제성장을 기원하는 주제로 여법하고 장엄하게 열린 이번 영산재는 봉원사 대웅전을 비롯한 영산재 보존회 회원 등 300여 스님과 3,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영산재는 이제 명실상부한 봉원사 및 태고종의 최대행사 자리 잡았다. 지난 20여년 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던 영산재는 이제 불교공연문화의 대표격이 됐고 한국 전통 문화의 한 축으로도 자리 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대중인지도 면에서도 급격한 확산을 보이며 수많은 해외공연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웠다.

이러한 영산재의 위상은 지난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국가적으로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진행된 영산재는 법패와 바라춤 등이 어우러진 우리 전통불교예술품의 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시연돼 온 영산재는 2007년부터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하여 6월 6일 현충일에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영산재에서는 나라를 위해 순직한 전안함 전몰장병과 한주조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제가 함께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영산재, 어떻게 진행되나?

영산재는 안차비와 바깥차비로 구성된다. 안차비는 순수한 불교의식절차, 바깥차비는 대중적인 전통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의식 절차다.

안차비로는 영혼을 모셔오는 타종시련(打鐘時籥), 대령(對靈), 탐·진·치의 삼독을 씻어내는 관육, 그리고 공양드리기 전 의식 장소를 정화하는 신중작법(神衆作法)이 행해진다.

바깥차비는 안차비와는 달리 대중들 앞이나 절 밖의 날찍한 마당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의식을 봉행하는 곳이 곧 도량임을 알리는 영산회상도를 내거는 괘불이운(掛佛移運)으로 시작된다. 괘불은 정면 한가운데 걸고 그 앞에 불단을 세운다. 불단에는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 신중(神衆)을 모시는 중단, 영가를 모시는 하단 등 삼단으로 구성한다.

괘불이운(掛佛移運) 이후 상단관공·영산작법(上壇勸供·靈山作法), 식당작법(食堂作法), 운수상단관공(雲水上壇勸供) 중단관공(中壇勸供) 신중퇴공(神中退供) 관음시식(觀音施食/奠施食)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 등이 진행된다. 이 중 상단관공(上壇勸供)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영산재를 올리게 된 이유를 부처님께 고하는 의식, 시식(施食)은 영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공양물을 대접하는 의식이다. 관공의식을 마친 뒤 재를 치르는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게 되는 축원문이 낭독된다.

식당작법(食堂作法)은 영산재 의식 중 백미로 참석한 대중이 엄정한 절차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모든 공양물을 나누어 먹으며 고마움을 깊이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봉송(奉送)은 의식에 청했던 대중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며, 극락세계에 이르도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영산재 세계적 문화공연 만들 터”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

일본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캐나다 슈류무용제 공연, 중국 종교국 초청 ‘츠란성 대지진 희생자를 위한 영산재’ 시연 등 세계 각국에서 영산재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3월 11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G-20정상회담 성공개회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2010영산재를 봉행해 국가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재의 종교적 승교합을 알린 바 있다.

이날 영산재 시연에는 일본 교토 세심암, 감로사, 인도 등에서 온 스님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세계 각국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일운 스님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이후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재로 의미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 관광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산재를 알림으로써 영산재가 불교행사를 넘어 한국전통문화, 세계공연문화로 확고히 자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산재 및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Temple stay) 프로그램 등도 마련하여 불교문화 알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일운스님은 “기존의 템플스테이 형식을 벗어나 영산재의 본 뜻과 현장감 넘치는 체험 및 한국전통문화와 서로 공존 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였다.

향후 영산재 보존회는 영산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봉원사의 증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설공연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운 스님은 “영산재는 보통 3일간 진행되지만 짧은 영산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연단도 만들 생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 문화 예술계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영산재의 다양한 예술성을 부각시켜 영산재가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제22회 영산재’를 주관한 영산재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 전수교육조교)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첫 시연회 인만큼 더욱 경건하고 장엄하게 봉행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 세계문화유산의 집 ‘상상의 축제’ 초청 공연, 벨기에,

